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선주 · 김한홍¹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치위생학과 · ¹강동대학교 치위생과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Sun-Ju Kim · Han-Hong Kim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and Sciences, Cheongju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dong College

Received : 30 October, 2013

Revised : 1 December, 2013

Accepted : 21 Jan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Sun-Ju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and Sciences

Cheongju University

Chungbuk Cheongju-si Sangdang-gu

Daesung-ro 298, 360-764, Korea,

Tel : +82-43-229-8997

+82-10-9242-6780

Fax : +82-43-229-8969

E-mail : sjkim@cju.ac.kr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ir employment stres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403 female dental hygiene students in five colleges in Chungbuk-do, Gyeongnam-do, and Daejeon.

Results : 1. The college students got a mean of 2.78 ± 0.42 , 3.27 ± 0.41 and 2.28 ± 0.52 in appearance satisfaction, ego-resilience and job-seeking stress, respectively. 2. Employment stress revealed higher score in poorer financial conditions($p < 0.001$) and less major satisfaction($p < 0.001$). 3. Employment str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to a physical attraction and somatic condition which were the sub-factors of appearance satisfaction. Stress also had a negative correlation to personal relationship and emotional control which were the sub-factors of ego-resilience. 4. Household economy($p = 0.023$) was identified as a variable that affected job-seeking stress, physical attraction($p = 0.048$) and somatic condition($p = 0.039$). Personal relationship($p = 0.040$) and emotional control($p = 0.034$) were the influential variables and had 33.2% of explanation power for employment stress.

Conclusions :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were the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Therefore counseling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o look at their own appearance and bodies in a more positive way, to foster their ego-resilience, to relieve and properly cope with employment stress and ultimately to promote their mental health.

Key Words : appearance satisfaction, dental hygiene students, ego-resilience, job stress

색인 :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 치위생 전공 대학생

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외모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외모를 통한 우월성을 가리거나 외모에 집착하는 현상들이 자주 관찰

되고 있다¹⁾. 외모만족도(Appearance satisfaction)란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도로써²⁾, 외모만족은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지되는 경향이 많으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지한다³⁾.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에게 외모는 주요한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으며, 힘든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여대생들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⁴⁾. 대부분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위생(학)과의 특성과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고려했을 때 취업 시 외모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계를 부담하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며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⁵⁾. 대학 시기는 그동안의 피교육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졸업 이후 진로를 결정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많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⁶⁾. 취업스트레스(Job stress)는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써⁷⁾,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등은 대학생들의 취업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신체적 증상과 질병, 심리적 부적응, 과제수행능력의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⁴⁾. 2009년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60%가 자살충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취업난이 20%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여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⁸⁾.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절을 느끼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⁹⁾. 치위생 전공 대학생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치위생 기술 뿐 만 아니라 취업 후 임상관련 적응력도 요구되는 등 과도한 학업 부담을 안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응요소이므로¹⁰⁾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에 매우 의미 있는 심리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 배출인원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취업스트레스는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취업과 연관된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 관리 전략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편적인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거나^{4,8,11,12)}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과 관련 된 단편적인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으나^{1-3,10,13,14)} 취업스트레스를 외모만족도 및 자아탄력성과 관련지어 개념화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이 느끼는 취업스트

레스의 정도와 외모만족도 및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편의 추출된 충청북도 소재 3개 대학교, 대전광역시 1개 대학교, 경상남도 1개 대학교로 치위생(학)과에 현재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421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8부를 제외한 40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30,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9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본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 충분한 표본수라고 할 수 있다¹⁵⁾.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연구목적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응답의 비밀보장과 개인의 특성은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명시하였다. 설문지의 참여는 학생 자의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불참 의사를 밝히게 되는 경우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든 대상자에게 간단한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지는 작성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5문항, 외모만족도 19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 취업스트레스 2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으로 나타내었다.

3.1.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는 Mendelson과 White¹⁶⁾의 신체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를 바탕으로 이¹⁷⁾가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총 19문항으로 신

체매력(5문항), 신체강도(7문항), 신체조건(7문항)으로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¹⁷⁾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0이었다.

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는 Block과 Kermen⁹⁾에 의해 개발되고, 유와 심¹⁸⁾이 번안한 도구를 김¹⁹⁾이 수정한 도구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대인관계(3문항), 활력성(2문항), 감정통제(2문항), 호기심(5문항), 낙관성(2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점수는 1~5점까지의 범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요구되는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에 개인이 자력성-통제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¹⁹⁾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0.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76이었다.

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도구는 황²⁰⁾이 코넬대학의 Cornell Medical Index를 참고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표²¹⁾가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성격스트레스(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5문항), 학업스트레스(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3문항)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²¹⁾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0.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9이었다.

4. 분석방법(Statistical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win. 18.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학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스트레스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대상자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변수들은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은 20-24세 71.7%로 가장 많았고, 학제는 3년제 71.5%, 4년제 28.5%였으며, 학년은 2학년 47.8%, 3학년 38.5%, 4학년 13.6%였다. 경제상태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79.7%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403

Variable	Category	N	%
Age(yr)	≤19	109	27.0
	20-24	289	71.7
	25≤	5	1.2
Education system	College	288	71.5
	University	115	28.5
Grade	2	193	47.8
	3	155	38.5
	4	55	13.6
Economic status	Good	14	3.5
	Moderate	321	79.7
	Poor	68	16.9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6	8.9
	Satisfied	311	77.2
	Dissatisfied	51	12.7
	Very dissatisfied	5	1.2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77.2%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스트레스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외모만족도의 평균은 2.78 ± 0.42 점이며, 하위영역의 신체매력은 2.00 ± 0.77 점, 신체강도는 3.00 ± 0.55 점, 신체조건은 3.12 ± 0.38 점이었다.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3.27 ± 0.41 점이며, 하위영역의 대인관계는 3.61 ± 0.45 점, 활력성은 3.36 ± 0.69 점, 감정통제는 3.15 ± 0.67 점, 호기심은 3.24 ± 0.69 점, 낙관성은 2.91 ± 0.65 점이었다. 취업스트레스의 평균은 2.28 ± 0.52 점이며, 하위영역의 성격스트레스는 2.11 ± 0.71 점, 가족환경스트레스는 2.45 ± 0.79 점, 학업스트레스는 2.22 ± 0.75 점, 학교환경스트레스는 2.86 ± 0.52 점, 취업불안스트레스는 1.64 ± 0.61 점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스트레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제에서 4년제 학생들이 3년제 학생보다 외모만족도($p=0.002$)와 자아탄력성($p=0.005$)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p=0.004$)와 자아탄력성($p=0.003$)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 상태에서 외모만족도는 경제상태가 좋을수록($p=0.047$), 취업스트레스는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p<0.001$)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 자아탄력성은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1$), 자아탄력성은 만족도가 낮을수록($p<0.001$)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2. Mean scores of appearance satisfaction, ego-resilience and job stress of the subject

N=403

Variables	M $\pm$ SD [†]
Appearance satisfaction	2.78 ± 0.42
Body attractiveness	2.00 ± 0.77
Body intensity	3.00 ± 0.55
Body condition	3.12 ± 0.38
Ego-resilience	3.27 ± 0.41
Interpersonal relations	3.61 ± 0.45
Viability	3.36 ± 0.69
Feeling control	3.15 ± 0.67
Curiosity	3.24 ± 0.69
Optimism	2.91 ± 0.65
Job stress	2.28 ± 0.52
Personality stress	2.11 ± 0.71
Family environment stress	2.45 ± 0.79
Academic stress	2.22 ± 0.75
School environment stress	2.86 ± 0.52
Job anxiety stress	1.64 ± 0.6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pm$ standard deviation

Table 3. Appearance satisfaction, ego-resilience and job stres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403

Variables	Appearance satisfaction		Ego-resilience		Job stress	
	M±SD †	p-value	M±SD †	p-value	M±SD †	p-value
Age(yr)		0.070		0.496		0.082
≤19	2.71±0.41		3.24±0.37		2.20±0.51	
20-24	2.81±0.42		3.29±0.42		2.31±0.53	
25≤	2.67±0.43		3.27±0.41		2.03±0.40	
Education system		0.002**		0.005**		0.584
College	2.74±0.39		3.24±0.39		2.29±0.50	
University	2.89±0.46		3.36±0.44		2.25±0.59	
Grade		0.004**		0.003**		0.785
2	2.74±0.40 ^a		3.24±0.39 ^a		2.26±0.53	
3	2.76±0.40 ^a		3.24±0.40 ^a		2.30±0.49	
4	2.95±0.42 ^b		3.44±0.46 ^b		2.28±0.52	
Economic status		0.047*		0.816		<0.001***
Good	3.00±0.35 ^b		3.26±0.33		2.10±0.62 ^a	
Moderate	2.79±0.41 ^{a,b}		3.28±0.41		2.23±0.52 ^{a,b}	
Poor	2.70±0.42 ^a		3.24±0.44		2.51±0.45 ^b	
Major satisfaction		0.087		<0.001***		<0.001***
Very satisfied	2.86±0.38		3.57±0.49 ^b		2.06±0.57 ^a	
Satisfied	2.79±0.42		3.24±0.38 ^b		2.25±0.50 ^a	
Dissatisfied	2.66±0.43		3.26±0.42 ^b		2.55±0.56 ^a	
Very dissatisfide	2.61±0.38		2.81±0.51 ^a		2.43±0.27 ^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a,b}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the Scheffe method at $\alpha=0.05$.

* $p<0.05$, ** $p<0.01$, ***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and one way ANOVA

4.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스트레스는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간에 음의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이들의 상관성은 낮게 나타났다. 외모만족도는 자아탄력성과 양의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이들의 상관성은 낮게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ego-resilience and job stres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867 ^{***}												
3	.780 ^{**}	.518 ^{**}											
4	.780 ^{**}	.611 ^{**}	.451 ^{**}										
5	.518 ^{**}	.283 ^{**}	.333 ^{**}	.336 ^{**}									
6	.721 ^{**}	.680 ^{**}	.423 ^{**}	.496 ^{**}	.194 ^{**}								
7	-.296 [*]	-.090	-.072	-.138 ^{**}	.001	-.214 ^{**}							
8	-.138 [*]	-.054	-.054	-.034	-.007	.065	.733 ^{**}						
9	-.202 [*]	-.096	-.073	-.155 ^{**}	.010	-.021	.830 ^{**}	.343 ^{**}					
10	-.182 [*]	-.153 [*]	-.031	-.137 ^{**}	-.003	-.103 [*]	.718 ^{**}	.245 ^{**}	.536 ^{**}				
11	-.308 ^{**}	-.022	.030	-.091	.077	-.201 [*]	.175 ^{**}	.082	.250 ^{**}	.043			
12	-.121 [*]	-.282 [*]	-.076	-.133 ^{**}	-.077	-.099 [*]	.164 ^{**}	.039	.240 ^{**}	.086	.552 ^{**}		
13	-.058	-.128 [*]	.036	-.082	.047	-.065	.110 [*]	-.012	.195 ^{**}	.062	.604 ^{**}	.311 ^{**}	
14	-.307 ^{**}	-.124 [*]	.024	-.088	.042	.033	.090	.064	.119 [*]	.006	.402 ^{**}	.096	.067
15	.078	.064	.076	-.008	.127 [*]	.044	.107 [*]	.071	.132 ^{**}	.028	.829 ^{**}	.251 ^{**}	.340 ^{**}
16	-.061	-.072	-.054	-.067	-.010	.023	.107 [*]	.079	.174 ^{**}	-.045	.577 ^{**}	.298 ^{**}	.307 ^{**}

*p < .05, **p < .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Job stress, 2: Personality stress, 3: Family environment stress, 4: Academic stress, 5: School environment stress, 6: Job anxiety stress, 7: Appearance satisfaction, 8: Body attractiveness, 9: Body intensity, 10: Body condition, 11: Ego-resilience, 12: Interpersonal relations, 13: Viability, 14: Feeling control, 15: Curiosity, 16: Optimism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job stress

N=403

Variables	B	SE [†]	Beta	p-value
Economic status(Poor/Moderate)	-7.676	3.370	-0.121	0.023 [*]
Economic status(Poor/Good)	-5.249	1.532	-0.182	0.001 ^{**}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Dissatisfied)	3.422	5.892	0.099	0.562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Satisfied)	-1.934	5.744	-0.070	0.737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Very satisfied)	-5.790	6.109	-0.142	0.344
Appearance satisfaction	-0.152	0.072	-0.106	0.035 [*]
Body attractiveness	-0.128	0.158	-0.109	0.048 [*]
Body intensity	-0.102	0.189	-0.034	0.592
Body condition	-0.203	0.249	-0.148	0.039 [*]
Ego-resilience	-0.404	0.176	0.201	0.022 [*]
Interpersonal relations	-1.058	0.315	-0.124	0.040 [*]
Viability	-0.910	0.532	-0.109	0.088
Feeling control	-0.228	0.279	-0.196	0.034 [*]
Curiosity	0.297	0.166	0.089	0.075
Optimism	-0.426	0.544	-0.048	0.433
R ² = 0.332				

[†]SE: standard error^{*}p<0.05,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p=0.023)과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p=0.001), 외모만족도(p=0.035), 외모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신체매력(p=0.048), 신체조건(p=0.039), 자아탄력성(p=0.022),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p=0.040), 감정통제(p=0.034)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2%였다(Table 5).

총괄 및 고안

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대학 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여²²⁾, 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취업스트레스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³⁾.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여대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남학생에 비해 더욱 높을 것으로 우려되며^{20,24)}, 과거에 비해 치과위생사의

배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도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도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 관리 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취업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 중 2.28점으로 나타나 치위생(학)과와 조사대상이 유사한 선행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²⁵⁾의 연구 2.81점, 간호학과 재학생 대상의 황⁶⁾의 연구 2.43점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김과 허¹¹⁾의 연구에서는 2.63점,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²⁰⁾의 연구에서는 2.42점, 유아교육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과 양¹²⁾의 연구에서는 2.08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전문 면허를 소지한 학과군에서 취업불안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선행 연구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 학생의 지역, 연령, 학년, 학과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향후, 대학의 설립 특성이나 지역 특성, 전공 특성 및

학년 특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확률적 표집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신이 느끼는 경제 상태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박⁵⁾도 경제적 여건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으며, 황²⁰⁾, 신²⁵⁾, 김과 김²⁷⁾도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부담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의 도입과 취업우선 추천제도와 같은 취업관련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 만족도의 경우도 경제적 상태와 마찬가지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와 학과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취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정과 양¹²⁾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과 김²⁷⁾은 자신의 진로가 먼저 결정되고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전공만족도가 높고 취업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는 보건의료계열 전공과 같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지닌 전공계열에서 상대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치위생(학)과도 이러한 이유로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흥미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확한 요인분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입시에 밀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여 학과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 후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적성검사나 진로상담 서비스 및 취업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외모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신체 매력, 신체강도 및 신체조건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면접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취업을 앞둔 여대생들은 성형수술이나 체중관리를 통해 자신의 외모를 이상화된 이미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⁴⁾. 박 등²⁸⁾은 여대생의 경우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로 인해 부정적 신체상의 자각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고, 본 연구에서도 외모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신체매력과 신체조건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외모가 꼽히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대학생은 자기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며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위축될 수 있고 결국 취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외모만족과 신체 이미지는 여자대학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¹⁾, 여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별개로 미에 대한 잘못된 이상형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나 가치관을 심어 줌으로써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외모 기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신념을 가지고 외모만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교육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외모로 자신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내재되어 있는 장점을 충분히 탐색하고 인지하여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이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및 감정통제가 취업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Block과 Kremen⁹⁾은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역동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동성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회복되는 힘이 크고 직면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경우가 적다고 하였다. 서¹⁰⁾는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대학생활적응을 유연하게 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대학 졸업반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확인한 신과 장²⁹⁾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증진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스트레스 대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효율적인 대인관계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유지하고 촉진할 수 있는 필요 요소이며, 미래의 치과위생사인 치위생 전공 대학생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므로 자아탄력성 증진을 통해 취업스트레스 대응력 뿐 만 아니라 대인관계능력 향상과 같은 추가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 우울 및 불안감을

높이며³⁰⁾, 단순한 취업강좌 또는 취업교육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취업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²⁶⁾. 취업준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상담 서비스에 연결하거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그룹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향후 자아탄력성 뿐 아니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 일반 정신·심리적 요인과 대인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중재 변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아직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외모로 자신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내재되어 있는 장점을 충분히 탐색하고 인지하여 자아탄력적인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스트레스 환경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중재가 모색되어야 한다. 치위생 전공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치위생 분야도 과거에 비해 취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대학, 학과, 개인 모두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학생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 조성을 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기평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와 목표설정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편의 추출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에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대학생 취업스트레스 대처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으로 제한하였으나, 취업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한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취업스트레스의 정도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하위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도 조사함으로써 이들의 주관적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후속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편의 추출된 충청북도 소재 3개 대학교, 대전광역시 1개 대학교, 경상남도 1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에 현재 재학 중인 여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외모만족도 평균 점수는 2.78 ± 0.42 점, 자아탄력성은 3.27 ± 0.41 점, 취업스트레스는 2.28 ± 0.52 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가정의 경제상태($p < 0.001$)가 좋지 않고 전공만족도($p < 0.001$)가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3. 취업스트레스는 외모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신체매력, 신체강도 및 신체조건,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 감정통제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로는 가정의 경제상태($p = 0.023$)와 외모만족도의 신체매력($p = 0.048$)과 신체조건($p = 0.039$),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p = 0.040$)와 감정통제($p = 0.034$)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2%였다.

위의 결과에서와 같이 외모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이 갖게 되는 취업스트레스를 좀 더 완화시키고 학생들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자아탄력성 증진을 통한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Lee JS, Han GH. The effects of university woman students socio-cultural attitudes to appearance on their body image and satisfaction of their physical bodies, J Fashion Business 2008; 12(2): 153-64.
2. Lim JH. A study on female students' satisfactory level of outlook o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Master's Thesis]. Seoul: Univ. of Myongji, 2011.
3. Kim KA. Relationship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body

- cathexi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ungshin Women's, 2003.
4. Han G. The influence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on job search stres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Master'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2013.
 5. Park SM. The employment stres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 in collegian of health related departments[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yungpook National, 2009.
 6. Hwang RI.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12; 26(2): 215-26.
 7. Kim HJ. Relationships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physical symptom in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yungpook National, 2004.
 8. Kang KH.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employment stress[Master's Thesis]. Gimhae: Univ. of Inje, 2010.
 9. Block JH,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 Pers Soc Psychol* 1996; 70: 348-61.
 10. Seo JH.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ir university life[Master's Thesis]. Busan: Univ. of Dong-A, 2012.
 11. Kim SY, Huh S. Research on employment stress and countermeasures of the graduates-to-be who majored in social work. *Korean J of Social Welfare Educ* 2009; 9: 23-51.
 12. Jung YH, Yang JH.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employment stress of the pre-service teachers who majored early childhood education. *J Future Early Childhood Educ* 2013; 20(3): 229-48.
 13. Yoo SK, Shim HW.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 Educ Psychology* 2002; 16(4): 189-206.
 14. Kim AS. The relationship of hospital employees' job stress,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mental health[Master's Thesis]. Suwon: Univ. of Ajou, 2011.
 15. Faul, F., Erdfelder, E., Lang, A., Buchner, A.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 Res Methods* 2007; 39: 175-91.
 16. Mendelson BK, White DR. Self-esteem and body esteem: Effects of gender, age, and weight. *J Appl Dev Psychol* 1996; 17(3): 321-46.
 17. Lee JA. Sociocultural influences on body-appearance satisfaction of 4th, 6th and 8th grade childre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Women's, 2005.
 18. Yoo SK, Shim HW.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 Educ Psychology* 2002; 16(4): 189-206.
 19. Kim AS. The relationship of hospital employees' job stress,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mental health[Master's Thesis]. Suwon: Univ. of Ajou, 2011.
 20. Hwang SW.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Master's thesis]. Busan: Univ. of Dong-A, 1998.
 21. Pyo E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 seeking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female college student's way of coping with stres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ookmyung Women's, 2009.
 22. Lin HS, Probst JC, Hsu YC. Depression among female psychiatric nurses in southern Taiwan: main and moderating effects of job stress, coping behaviour and social support. *J Clin Nurs* 2010; 19(15-16): 2342-54.
 23. Jeong ES, No AY. The relationship among job-seeking stress,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in university students. *Student Life Research* 2001; 33: 85-101.
 24. Gang BM. The causes of social stress and way of coping with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Konkuk, 2003.
 25. Shin SH.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4): 663-70.
 26. Cho HC.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013; 24(1): 157-84.
 27. Kim EJ, Kim JK.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and the coping type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08; 8(4): 65-77.
 28. Park BN, Lee HJ, Park JS. The effects of health management program on BMI, Obesity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J Korea Soc Health Inform Stat* 2007; 32(2): 1-12.
 29. Shin HK, Chang JY.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ender,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eniors. *Korea J Clin Psychol* 2003; 22(4): 815-27.
 30. Kim MJ, Cho GH.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related economic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hopelessness and mental health in Korean youth. *Korea J Soc Pers Psychol* 2009; 23(4): 47-62.